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애비게일 애덤스 -

PART 4

세무사 합격수기

-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이룬 동차합격
- 세무사 수험생활 보고서
- 절박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 직장과 수험생활 사이의 짜릿한 줄타기
- 38세 늦각이 삼수생의 합격수기
- 동차 합격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 세무사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 Now, It's time to start
- 제약 영업에서 세무사 합격까지
- 직장인도 생동차 합격할 수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의 철저한 계획과 노력으로 이룬 동차합격

강성은

제 52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2015년 세무사 52회 합격자 강성은입니다.

저는 대학교 재학 중 휴학기간동안의 수험생활을 거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험기간 중 먼저 시험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수기를 많이 보고 저의 방식대로 공부법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제 공부법을 소개해 앞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수험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저의 수험기간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입니다. 저의 전공은 정치외교학이고, 2014년 1학기에 학교에서 회계학원론(회계원리) 과목만을 들은 상태에서, 2학기부터 휴학을 한 후 본격적으로 수험생활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1년동안 전업으로 하루종일 세무사 공부에만 매진했기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 하면서 공부하실 때는 저의 공부법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험기간 중 저는 철저히 계획 위주로 공부했고, 월별과 주별로 계획을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1. 1차 시험 준비

1차시험이 없으면 2차시험도 없습니다. 저는 1차시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로 1차시험은 재정학, 상법에서 점수를 높이고, 회계와 세법은 과락 점수를 넘기는 것을 전략으로 하지만, 저는 회계와 세법이 2차시험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4과목 모두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학원을 교대역 근처 아이파경영아카데미를 선택했습니다. 먼저 2014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무사1차종합반]을 인터넷 강의로 들었습니다. [세무사1차종합반]은 학원에서 5월에 오프라인으로 개강한 강의인데, 저는 9월부터 11월, 12월부터 2월까지 총 2번 인터넷강의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월말부터 개강한 [객관식 집중과정 종합반]을 학원에서 오프라인 강의로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강의[객관식 집중과정 종합반]를 복습차원에서 인터넷강의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같은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단기간에 개념을 습득하고문제를 잘 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월에 학원에서 실시한 2번의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1차시험에서 모의고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객관식시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 시간을 안배하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은 각 교시당 80분입니다. 저는 재정학과 상법은 20분내에 풀려고 노력하였고 실제 시험에서도 두 과목 모두 20분 안에 풀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회계와 세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재정학과 상법을 철저히 준비하여 빨리 풀고 회계와 세법에 좀 더 시험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반복학습에 주력했습니다. 아무리 몰라도 반복해서 공부하니 이해가 되고, 문제도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1차시험 4과목 모두 기본서를 기본 5회독 이상했습니다. 기본서로 기본이론을 익힌 후 객관식문제를 반복해서 풀었는데, 문제를 풀면서도 기본서는 틈틈이 읽었습니다. 책은 과목당 한권씩 보고 중간에 공부한 책은 절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책을 반복해서 본 것입니다.

시험10일전부터는 지난 5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간에 혼자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서 거의 대부분 답을 알았지만,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풀었습니다.

(1) 재정학(75점)

재정학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회계와 세법에 비해서 양은 적지만 기본이론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지만 재정학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원래 경제 전공도 아닌 저는 기초를 확실히 하자고 생각해 황정빈선생님의 [PRE재정학 미시경제학]을 인터넷강의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봤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초가 쌓이니 재정학에 대한 이해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복습을 하고, 책에 있는 문제도 이론 복습과 함께 풀었습니다. 1차시험전까지 기본서를 인터넷강의의 복습 빼고 10회독정도 하였고 책에 있는 문제도 10번정도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계산문제도 모두 풀었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초를 쌓고 공부하니 계산문제도 금방 풀 수 있었습니다. 대신, 시간 때문에 2번 정도 풀어서 답이 안 나오면

바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계산문제가 쉽게 나와서 다 풀 수 있었습니다. 실제 시험이 생각보다 어려웠지만, 기본이론을 생각해 하나하나 풀어서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세법학개론(75점)

공부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인터넷강의를 보고, 복습하고,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반복학습을 하니 세법이 눈에 들어오고 이해가 됐습니다. 강의는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부가가치세, 기타세법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부가가치세를 잡고가기 위해서 따로 기본이론인강을 신청하여 2번 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1차준비기간중 확실히 공부해서 이후 법인세와 소득세에 공부할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세법 공부중 저는 포기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희양선생님이 일단 강의해주신 부분은 모두 익히고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법인세, 소득세를 끝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까지 2차시험에도 나오는 세목들은 다른 기타세법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했습니다. 세법을 어느정도 익힌 후 2월말에 일주일 동안 위 4가지 세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일주일동안 세법만 공부한 이후로 세법에 대한 자신감과 실력을 확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세법은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개정세법에 맞춘 문제만 풀었고, 그중에서 선생님이 찍어주신 문제와 기출문제만 풀었습니다. 문제보다는 이론 부분을 반복해서 보고 이해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세법도 암기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아예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세기본법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세법은 모두 암기하려 했습니다. 국세징수법은 2월부터 보기 시작했고, 국제조세조정법들과 조세범처벌법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찍어주신 부분만 공부했고, 양이 많지 않아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3) 회계학개론(62.5점)

처음 이론강의를 들으면서 회계원리책을 2번 정독했습니다. 처음에 기초로 회계원리를 잡고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도 세법과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강의한 모든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공부했고 이 또한 2차시험 준비할 때 많은 도움

이 됐습니다. 1차시험은 아무래도 시간 싸움이니 저는 무엇보다 문제를 빨리, 정확히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점점 속도를 높여 빨리 푸는 것을 연습했습니다. 이 연습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의 객관식 책을 5번 이상 반복해서 풀었고, 학원에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는 그 다음날 바로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도 꼼꼼히 봤습니다. 계산문제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말문제(이론문제)도 출제되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말문제를 정확히 빨리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 문제는 학원에서 선생님이 짚어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4) 상법(회사법)(92.5점)

1차시험 4과목중 가장 고득점하기 쉬운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상법 기본서를 10회독 정도 하였고, 기출문제도 10번 이상 풀었습니다. 따로 회사법전을 보지는 않고, 강의를 듣고,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 두권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문제는 책에 있는 세무사기출문제와 회계사기출문제도 풀었습니다. 상법은 회계학을 위해서 빨리 풀고 고득점을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법을 정확하고 빨리 풀어야 회계학 풀 시간도 많아지고, 회계학 점수도 잘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2차 시험 준비

보통 2차시험기간은 1차시험이 끝난 후 약 3개월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차시험 채점 후 바로 2차시험까지 남은 기간을 세보았습니다. 무려 104일 이었습니다. 1차시험과부터 2차시험까지의 시간은 하루하루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차시험을 보고 다음날부터 바로 2차시험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2차시험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2차시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그 다음날 아이파경영아카데미 2차동차반을 접수하였습니다.

학원에서 오프라인으로 2차동차반을 수강하면서 똑같은 강의를 인터넷강의로 복습하였습니다. 6월말부터는 유예3순환 모의고사강평반을 인터넷강의로 들었습니다.

니다. 총 10회분으로 7월까지 일주일에 두 번 실제 시험시간에 맞춰 모의고사를 본 후 강평강의를 들었습니다. 또한 동차반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한 GS모의고사강의도 학원에 와서 들었습니다. 저는 따로 그룹스터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2차시험준비기간은 짧기 때문에 스터디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적어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2차시험은 논술형으로 저는 답안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원에서 파는 2차시험 답안지를 구입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 때 답안지에 썼으며, 20부 정도 구입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썼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쓰는 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나의 펜을 정해서 2차공부기간동안 그 펜으로만 모든 필기와 공부를 하고 그 펜으로 모의고사와 실제시험도 치뤘습니다. 최대한 짧은 시간에 2차시험에 최적화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1) 회계학1부(85점)

1차시험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회계학1부는 1차와 같이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는 2차시험에서는 회계학1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시간도 부족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서 김강호선생님과 이남재선생님이 풀어주신 문제만 반복해서 풀고,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만약 1차에서 회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셨다면(고급회계 문제 풀 정도) 2차는 학원에서 해주는 것만 해도 무난하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모두 답을 맞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이 맞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풀기위해서 꼼꼼히 풀어서 답을 맞히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2차시험 2주전부터는 모의고사로 풀었던 10회분 문제를 또다시 10일동안 매일 풀었습니다. 2차시험에도 계산문제 뿐만 아니라 개념서술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는 기본서의 개념정리와 이론부분을 보았습니다.

(2) 회계학2부(44점)

회계학2부는 세무회계입니다. 2차시험 준비기간의 반이상을 세무회계에 쏟았는데 겨우 과락 면하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세무회계는 어려우며, 양도 많고

정말 공부하기 힘든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세무회계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몰라서 작년 2차동차반 OT강의를 들었습니다. OT를 듣고 2차동차반 개강전까지 2주간의 기간이 남아 이 기간에 세무회계를 한번 잡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차동차반에서 사용하는 책(세무회계연습)의 저자 이철재 선생님의 인터넷강의를 들었습니다. 1차시험이 끝나자마자 들었는데, 세무사강의가 아닌 회계사세무회계대비 강의였습니다. 인터넷강의로 세무회계를 한번 훑고 2차동차반 오프라인강의를 들었습니다. 2차동차반에서는 세무사2차세무회계에 나올 것이라 문제 푸는 요령을 중점적으로 들었습니다. 인터넷강의와 달리 2차동차반에서 정말 동차에 최적화된 세무회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무회계연습의 법인세부분은 5회독하고 문제도 5번 풀었습니다.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3번 정도 풀었고, 동차 GS강의와 유예3순환모의고사 강의를 병행 하였습니다. 1차에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것이 큰 힘이 되었고, 세무회계는 하루도 쉬지 않고 5문제정도 풀었습니다. 회계학1부와 마찬가지로 2차시험 2주전부터 모의고사로 풀었던 10회분 문제를 또다시 10일 동안 매일 풀었습니다. 저는 시험에서 모든 문제를 다 푼다는 생각으로 연습했습니다. 세무회계도 시간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답안 쓰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의 문제를 풀 때도 진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답안지에다가 답안요령에 맞게 풀었습니다. 문제 풀 때 시간안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안배연습도 하였습니다.

(3) 세법학1부(62점)

세법학1부는 국세기본법, 법인세, 소득세, 상증세로 나뉘는데, 2부에 비해서 공부하기 수월했습니다. 상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목을 1차에서 공부한 덕분에 꽤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와 소득세는 세무회계에서도 다루지므로 저는 국세기본법과 상증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기본서를 보지 않고 학원교재인 세법학M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이 책을 학원에서 한 복습까지 포함해 약 10회독 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다보니 나중에 한 세목당 3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증세 생소하여 학원 강의를 듣고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세법학 1,2부 모두 7월이 되기 전 쓸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니다. GS세법학모의고사집을 사서 모범답안을 보고, 학원에서 답안 쓰는 요령을 배워서, 6월말부터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물론 시간을 정확히 재고 풀었고, 무조건 10페이지 이상은 채웠습니다. 모의고사를 계속 풀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답안지 쓰는 요령도 점점 늘었습니다. 모의고사를 항상 실전처럼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실제 시험에서도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4) 세법학2부(47점)

세법학2부는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다 2차에서 처음 접하는 세목들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차에서 많이 준비한 것도 있어서 많이 하지는 않고 개정된 것과 학원에서 강의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양이 적어서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전부암기하려 노력했고 지방세는 암기와 함께 학원에서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판례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조특법은 계속 공부하다가 시험 2주전부터 봤습니다. 조특법이 많이 걱정되지만 그 많은 양을 공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나머지 부가가치세, 지방세, 개별소비세를 확실히 더 공부하였습니다. 조특법은 학원에서 선생님이 찍어준 문제만 완벽하게 습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번 훑어보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시험문제에서는 조특법이 25점 배점에, 전혀 모르는 것이 나와 당황했지만, 저는 그래도 답을 2쪽 이상 썼습니다. 그냥 문제 자체를 제 식대로 풀어쓰고, 생각나는 것을 막 적었는데, 운 좋게 과락을 넘긴 것을 보면, 조특법이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흡한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준비를 하시면서 이 글을 읽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 모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아이파경영아카데미와 저를 가르쳐 주고, 제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을 해주신, 김강호선생님(재무회계), 이남재선생님(원가회계), 노희양선생님(세법학개론, 세법학2부), 황정빈선생님(재정학), 민일선생님(상법), 장민선생님(세무회계), 강종철선생님(세법학1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랑 같이 수험생활을 함께한 2차동차반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사 수험생활 보고서

이동현

제 52회 세무사 시험 합격

I. 동기

친구의 소개로 나이의 제약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꼈고, 상공회의소 통계 등 자료에서 직업만족도가 다른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시험 준비를 결심하게 됨.

II. 아이파를 선택한 이유

12년 2월 수험을 시작할 당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세무사 공부를 위한 정보 수집 결과 합격률, 커리큘럼, 강사진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직장인의 입장에서 아이파가 최적이라는 판단을 함.

III. 수험생활 개요

- (1) 공부기간 : 약 2년 6개월 ('13.03 ~ '15.08)
- (2) 응시횟수 : 1차 2회 '13.04(탈락, 평균25) / '14.04(합격, 평균68)
2차 2회 '14.07(탈락, 평균38) / '15.08(합격, 평균58)

IV. 공부방법

1. 1차, 2차시험 공통 사용 방법

(1) 공부시간 체크, 관리

- * '스터디체커' 어플을 활용하여 공부시간을 측정, 관리함
- 합격까지 총 누적 공부시간 : 3,300시간 (수업 + 자습)

(2) 필기구

- * '제트스트림' 사용
- 0.38mm : 정리노트, 수업필기

0.5mm : 재무, 원가, 세무 문제풀이, 기타

0.7mm : 세법학 답안작성

(3) 수업필기

별도의 노트에 필기하는 것은 다시 책을 봤을 때 같이 보기 힘들 것으로 판단하여 모든 필기는 책에 하였음.

(4) 문제집 문제 번호에 풀이 이력표시

* 2 번 이상 연속적으로 틀리는 문제 위주로 다시 풀어보기 위해 문제 번호에 틀린, 맞춘 횟수 기호로 표기함

(5) 앞 글자 따기

1차용 : 상법, 재정학

2차용 : 회계학2부, 세법학1,2부

앞 글자를 따서 외움으로써 암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므로 다른 부분을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다 판단함.

(6) 동료

짧지 않은 수험기간 동안 같은 주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동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위안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엄격한 시간관리 없이 옆자리에서 같이 공부하는 것은 집중력 하락과 배려의 함정이 우려되어 자습은 개별적으로 함.

(7) 정오표 확인

수험서의 대부분은 매년 개정되어 나오고 교재에 따라 오, 탈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오표를 찾아보고 오류내용으로 잘못 공부하는 일을 방지해야 함.

(8) 질문 하는 법

수험생활이 익숙해지면 각자 자신의 질문하는 방법에 노하우가 생기나 초반에는 모르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모르기에 질문하기도, 대답들도 어려우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 노력함.

① 1질문내용 메모(요약) → ② 2관련내용 찾아보기 → ③ 3해당 질문에 대한
가설 → ④ 4강사님에게 질문

2. 2차에 사용된 방법(유예시기)

(1) 글씨체

본래 글씨체가 매우 안 좋아 '백강 고시체', '창천체'를 참고하여 자가 교정함.
실제적으로 시험 점수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측정할 수 없었으나, 자신감
증진과 불안감 해소에는 실제로 도움이 되었음

(2) 강의 녹음 청취

휴대폰 녹음 어플을 활용하여 세법 등 주요 강의 시 녹음하여 운전 또는 이동 시
청취강의 등을 들을 때 재생 속도 조절은 필수인데, 안드로이드 어플 "뮤직캣"을 이
용해 속도를 조절하며 들음

(3) 앞글자 노트 제작(for 세법학)

주요 내용을 앞글자 따서 노트를 만들어서 이동 시 등 활용함.
또한 이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운전 등을 할 시 활용.

(4) 오답노트 작성(for 회계학)

회계학 I, II의 경우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오답노트를 작성
하여 보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함. 단, 길게 적으면 시간소모가 크므로 핵심
내용을 최대한 한, 두 줄로 요약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함.

(5) 서머리노트 작성(for 세법학)

세법학 I, II의 경우 여러 번 읽고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험을 5달쯤 남겼을 때부터 작성하기 시작함.

세법학 I, II 교재를 노트 한 권에 요약 정리 한다는 느낌으로 작성하였고 50일 정
도 걸려 완성함. 서머리 노트 작성 후엔 책 대신 서머리 노트를 들고 다니며 공부함.

색깔 펜을 섞어서 쓰면 검은색을 사용한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특별한 경
우가 아닌한 대부분 검은색 볼펜으로만 작성함.

(6) 스터디 모임

1차 준비 때는 스터디 모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하지 않음.

2차 유예 때는 약 6개월간 집 근처 도서관에서 2명이 매주 모여서 여러 학원의 회계학 I, II부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제한 하에 풀어봄. 실전 문제풀이와 시간 배분 감각, 강사별로 상이한 문제유형 적응에 도움이 많이 됨.

(7) 공부계획

학원 유예반 수업이 매주 토, 일 있었기 때문에 공부계획도 대체로 주단위로 세워 이행함. 주간 계획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큰 계획은 목표 회독을 바탕으로 한 과목별 목표 회독에 마감기한을 설정함.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오차가 발생할 때 계획을 수정 또는 재 작성하여 공부를 현실점에서 진도를 이어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완함.

시험 100일 전 쯤부터는 압박과 스트레스로 집중이 잘 안되었기에 초 단계 계획을 활용함.(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 것만 계획함. 일종의 단기 퀘스트 개념)

(8) 휴식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가 주 화두였기 때문에 쉴 땐 종종 기억력, 뇌 인지, 집중력, 명상 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 봄

(9) 세법학 모의고사 다시 풀기

세법학 모의고사는 체력소진이 심한 과목이라 모의고사 문제를 다시 풀어보기도 부담스러웠음. 이런 이유로 다시 풀어보되 1부 4문제 30분, 2부 4문제 30분 시간 내에 간단히 쟁점과 조항, 결론만 문제당 1페이지로 요약하는 연습으로 대체하여 연습함.

V. 후기

'14년도 1차 시험 준비기간에는 1차 합격만을 목표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이유로 법인세를 포기하였기에 동차시험에서는 3과목 과락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밖에 없었지만 나름대로는 동차합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판단 하에 유

예합격을 목표로 장기 계획을 세운 결과기에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2차 유예시험 때에는 어느 정도 온도 따라주었기에 계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멘탈 관리라 생각합니다. 길다면 긴 수험 생활에서 “부지런한 나”와 “계으른 나” 이 두 자아가 리듬에 따라 주도권을 교차하며 가진다고 가정 할 때, 전자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공격적인 방법으로 중요하다면 후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하여 공부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지 역시 방어적인 성격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위에 기술한 공격적인 방법으로써 학습 전략은 여러 선배님들의 합격수기와 공부법 등을 통하여 널리 공유되었고, 공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체력, 정신력, 경험, 환경, 성격 등에 따라 저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따라 전략을 달리 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목표지점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구체적인 계획과 통계를 만들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댈 수 없도록 손이 닿는 모든 곳에 학습자료를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 스스로가 게을러지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고, 게을러 지더라도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효율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하고 기본적인 내용들이라 할 수 있으나, 저의 경우엔 세무사시험 준비에 관련된 지식이나 지인이 전혀 없었기에 지금까지 위에 기술한 내용의 대부분은 제가 수험생활을 시작하고 유지하면서 궁금해왔고 정보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왔던 내용들을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 왔던 것들입니다.

합격이라는 결과를 알게 된 후엔 합격이라는 감상으로 지난 노력을 왜곡하여 전달할 것이 우려되어 이 글 대부분의 내용은 합격 발표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작성 해놓고 이 ‘V. 후기’ 만 발표 후인 10월 29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결과적으로는 이기기 위한 싸움이나 실은 압박과 스트레스의 길 위를 꾸준히 지지 않고 걷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험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부족한 제 글을 통하여 다소나마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절박하게 공부하면 반드시 붙을 수 있습니다!!

천지혜

제 51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51기 세무사 합격자 천지혜입니다.

저는 약 2년간의 수험생활을 마치고 유예 합격하였습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공학인데, 합격 이후 가장 많은 받았던 질문이 관련학과가 아니어도 공부 할 수 있는 시험이냐는 것과 컴퓨터공학 전공이 어떻게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또 어떻게 합격까지 하게 되었느냐는 것 같습니다. 관련 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을 저를 본보기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일반회사의 경리로 일하다가 전문직이 되고 싶어서 31살 늦은 나이에 사표를 내고 세무사 시험 준비에 올인 했습니다. 주위에선 그 나이에 용기가 대단하다고 했죠. 그만큼 절박하게 공부했고 그 절박함이 절 합격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II. 수험생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친구들에게 저의 수험생활을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 시간이었고, ‘세무사가 되기 전에는 너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으마’ 라고 했었죠. 제 핸드폰이 켜져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 시간 남짓할 정도로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수험생활 동안에는 결혼식, 술자리 등에 일체 참석하지 않았고 집, 학원, 도서관 외에는 다른 장소는 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 동차 수험생활

2012년 9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2012년 10월 세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 강남의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종합반에 수강등록을 하고 학원에가기 시작했습니다. 종합반 수강생의 대부분은 기초반 수업부터 계속 수강해오던 수험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 기초반을 수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엔 수업내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복설명을 듣다보니 나중엔 이해가 됐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꼭 기초반은 듣지 않아도 반복학습을 한다면 종합반부터 바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은 재정학이 시험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많이 나와 위험했지만 상법이 90점으로 평균점수를 확 올려주어 넉넉한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가방 내려놓기가 무섭게 채점부터 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면 학원 홈페이지나 카페 등에 가답안이 올라옵니다. 합격한 걸 확인하자마자 2차 시험 준비가 막막했지만 1차 시험 이후 약 일주일후에 2차반 수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다시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많이 쉬고 체력적으로 많이 보충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잠도 많이 자고 운동도 많이 하고 등산도 다니면서 일주일 보냈습니다.

2차반 수업 첫날. 학원에 가니 합격할 걸로 예상됐던 사람들도 보이고 합격이 의외인 사람들도 보이고 느낌이 많이 새로웠습니다. 서로를 1차시험 합격을 축하한다면서 축하의 말도 나누고 선생님들도 축하의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2차시험은 1차시험과는 다르게 서술형이다보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많이 막막했고 모의고사를 봐도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생각이 안나 볼펜 끝만 씹다가 몇 줄 써보지도 못하고 보낸 시간도 많았습니다.

2차반 수업부터 2차 시험까지는 90일 남짓이었고 그 시간 내에 2차 과목을 충분히 공부하기란 불가능해보였습니다. 특히 세법학은 1회독 하기에도 시간이 벅찼습니다. 동차합격생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 준비반부터는 보통 스터디를 구성해서 서로 모의고사 문제도 준비해오고 서로의 답안지도 바꿔보고 합니다. 근데 전 저 혼자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스터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 3주전쯤부터는 학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이 용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왕복시간 조차 아까워서 동영상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90일은 손살같이 지나갔고 2차 시험 당일 패배의 쓴맛을 보았죠. 회계학 1부는 시간안분 실패로 원가관리회계는 거의 풀지를 못 하였고 회계학 2부

도 3분의 2정도 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세법학 1,2부는 답안지 5, 6장을 쓰고 나니 더 이상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답안지를 너무 못 채우고 시험장을 나와서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발표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학원수업도 없고 같이 학원 다니던 다른 수험생들은 다들 쉬기도 하고 공부는 안하더군요. 하지만 전 정말 유예로 못 붙으면 내 인생 끝이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2차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까지 거의 3개월의 시간인데 그 시기에 책을 아예 손에서 놓았었다면 그나마 공부하던 것도 대부분 잊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원을 다니거나 할 때보다는 집중은 안됐지만 그 시기에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최종 합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2. 유예 수험생활

동차 불합격 확인을 하고나자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부계획을 짰습니다. 유예때 학원은 GS반이 따로 있기도 하지만 보통 유예 1기, 2기, 3기로 나뉘집니다. 1기는 동차준비때의 수업과 비슷하게 모의고사는 거의 보지 않고 이론수업을 합니다. 2기부터는 실제 시험시간에 맞게 모의고사를 풀고 그 모의고사 문제풀이하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1기 수업은 학원에 왕복하는 시간을 절약하고자 온라인 수업으로 수강했습니다. 2기는 채점과 첨삭을 받기위해 세법학만 학원에서 수강하고 다른 과목은 온라인수업으로 모의고사를 출력해서 집에서 시계를 맞춰놓고 풀고 혼자 채점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3기는 학원수강을 하지않고 2기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고 교재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학원이나 서점어가면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하는것과 같은 양식의 답안지를 판매합니다. 그걸 사서 풀기에는 너무 비쌌고 저는 2차 수업 처음 시작할 때 학원에서 나눠준 답안지를 복사해서 사용했습니다. 답안지 양식에 풀면서 공부하는것과 일반 연습장에 푸는 것은 줄의 간격이나 종이 크기에서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답안지 양식에다 연습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내가 푼 답안지가 A4 두 박스가 나오면 그때쯤 시험에 붙을 준비가 된다.' 그 말씀에 많이 동의가 되는게 유예 2

차시험 보기 한달전 즈음에 제가 쓴 답안지가 A4 두박스가 됐었는데 그때 쯤되니 빨리 시험보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빨리 시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시험 볼 준비가 된 것이라는 말도 들은 적이 있는데 맞는가 봅니다.

Ⅲ. 세무사 1차 공부방법

1. 합격의 확률을 높이는 Tip

(1) 학원에 일찍오세요. 그리고 앞자리에 앉으세요.

1차 시험은 아이파경영아카데미에서 준비했습니다. 집이 용인이라 평일저녁의 학원수업은 왕복시간이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주말수업으로 준비했습니다. 학원 수업은 한번도 빠지지 않았고 맨 앞자리에 앉기 위해 수업시작 두시간 전에 먼저 강의실에 와서 자습을 했습니다.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것과 뒷자리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합격률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뒷자리는 오래앉아 있다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잠을 이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합격하고 싶다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으세요.

(2) 공부하는 동안 핸드폰은 잠시 꺼두세요.

집중력 방해에 핸드폰만한게 없습니다. 수업중간에도 메시지가 오면 확인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고, 세무사가 되는 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으십니까?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전화를 받으러 나간동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1시간마다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핸드폰은 그때 켜도 되지 않을까요. 수업시간뿐만 아니라 혼자 공부할 때도 핸드폰 때문에 공부에 집중 못하는 수험생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3) 술자리 가지마세요.

학원에 오면 같은 처지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서로의 위로가 되는 건 좋지만 저녁먹으며 얘기하다보면 그게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술자리에서 스트레스 푸는 동안 합격예정자들은 1분에 한 문제씩 더 풀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세요. 술자리는 합격하고 나서 합격의 기쁨을 나눌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1) 재정학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전공하지 않아서 공부를 해본적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에 대한 기초지식이 많이 부족했고 무엇보다 재정학이 저에겐 어떤 과목보다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재정학은 책에 있는 내용만 나오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더 공부하기 어려웠습니다. 제 수준에 맞는 쉽게 설명된 책을 찾기 위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책 저책 여러권을 사서봤고 동영상강의도 이것저것 많이 들었습니다. 나중엔 저에게 맞는 책 한권을 선택해서 반복해서 풀었고 [재정학 연습](정병열 지)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2) 세법학개론

1차 시험의 세법학개론은 암기를 얼마나 정확히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암기해야 될 수많은 날짜들과 숫자들, 글자 수 하나로 헛갈리게 만드는 문장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그저 반복암기였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것들은 보이는 곳곳에 붙여서 수시로 보고 이동시간에도 헛갈리는 것들은 계속 되새겨보고 생각이 안나면 다시 책을 들춰서 보고, 반복해서 보다보면 나중엔 눈에 익어서 헛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다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것들도 많습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풀되 여러번 풀다보면 풀 때마다 맞는 문제가 있고 풀 때마다 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풀 때마다 맞는 문제는 시험장에서도 맞습니다.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맞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시고 풀 때마다 맞는 문제는 시험보기 직전에만 한번 체크하는 방식으로 회독수를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세법개론 책 무척이나 두껍습니다. 어느 하나 빠뜨리는 것 없이 책 내용의 대부

분을 암기해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라고 생각하지마세요. 외우실 수 있습니다.

(3) 회계학개론

재무회계와 원가관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규칙을 암기해야하고 빨리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계산문제가 대부분이다보니 한번풀어서 보기중에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풀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문제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시간이 부족하게 됩니다. 한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 문제를 봤을 때 빨리 풀수없을꺼같은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풀었을 때 그나마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 문제도 틀리고 그 문제에 들인 시간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맞출 수 있는 다른 문제를 못 푸는것 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회계학개론은 상법과 회계학 각문제의 시간배분이 중요합니다.

(4) 상법

상법은 무조건 고득점을 맞아줘야합니다. 그래야 회계학개론에서 시간이 부족해서 문제를 다 못풀거나 계산문제를 많이 틀려도 과락만 넘기면 상법점수로 평균점수를 올릴 수 있을 정도를 맞아줘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 때 상법을 먼저 푸는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법 40문항은 최소한 20분내에 풀도록 연습하고 회계학개론에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할수있도록 준비하셔야합니다. 상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면 회계학개론은 시간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상법은 말장난에 속지않게 문장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빠르게 읽고 문제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언뜻보면 맞는 것 같은 문장이 여러개 있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회독수를 많이해서 반복해서 읽고 OX 문제를 많이 풀어보세요.

IV. 세무사 2차 공부방법

(1) 회계학1부

재무회계는 IFRS 재무회계연습(김기동 저)로 공부했고 원가관리회계는 원가관리연습(김용남 저)로 공부했습니다. 회계학1,2부는 학원은 다니지않았고 온라 인수강의로 모의고사만 받아서 혼자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가 틀린답도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만으로 공부하시면 안되고 모의고사는 시간조절하는 연습으로 활용하시고 교재의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권의 책을 풀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책을 하나 골라서 여러번 반복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 공부때처럼 반복해서 풀되 풀때마다 틀리는 문제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책들은 일단 문제양이 다른 책에 비해 많습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쉬운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2차 시험을 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다음해에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라고 건너뛰지말고 모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회계학2부

세무회계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문제를 푸는 것보다 답안지를 쓰는 요령이었습니다. 세무조정에 대한 답을 쓸 때 칸은 어떻게 나눠서 써야하는지, 숫자는 0을 모두 써야하는지 아니면 단위표시를 하고 만단위로 써도 되는 것인지, 숫자의 0은 흘려써도 되는지 아니면 정확하게 0을 또박또박 써야하는지, 문제풀이 과정은 어느정도나 자세하게 써야하는지... 그런 문제들이 더 어려웠습니다. 문제풀 때 가능하면 답안지 양식에 맞게 푸는 연습을 하다보면 어느정도 요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숫자는 또박또박 큰 글씨로 쓰고 0도 정확하게 표기하는게 좋습니다. 합격자 중에 단위표시를 하고 만 단위로 답안을 작성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쓸 수있다면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전 숫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표기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는 만 단위로 표기하고 어떤 문제는 전체 숫자를 표기하여 일관성이 없으면 실수로 틀리게 되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이 틀리더라도 문제풀이 과정에서 부

분점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 과정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는 한 전체 과정이 보이게 적는 게 좋습니다. 회계학 2부는 다른 어떤 과목보다 문제양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 안분에 유의하시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는 건너뛰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3) 세법학1부

세법학은 아마 어느누구에게나 가장 막막한 과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 동차시험때는 세법학 답안지를 채워야하는 양의 반도 채우지 못했고 결국 과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예준비를 하면서 터득한 방법은 기출문제든 모의고사 문제든 풀어보고 모범답안을 눈으로만 확인하지 않고 모범답안을 그대로 답안지에 옮겨 적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모범답안을 답안지에 옮겨 적어보면 목차 구성방법이 일단 익혀지고 답안지양을 조절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배점이 20점이 문제의 모범답안이 있는 경우 간혹 20점 배점에 맞지않게 막상 답안지에 옮겨 써보면 답안지 분량이 3페이지 4페이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모범답안은 옳은 답안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답안은 내 나름대로 분량을 20점 배점에 맞게 줄여봅니다. 반대로 배점보다 페이지수가 적은 모범답안은 답안지 분량을 늘려봅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내용도 외워지고 답안지 분량 줄이고 늘리는 요령도 터득되니 그 방법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4) 세법학2부

저도 궁금했었고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건 조세특례제한법의 공부 방법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대한 양을 다 외우기는 불가능합니다. 전 선생님이 중요하다라는 것만 외웠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쓰냐 못쓰냐로 합격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예시험을 볼 때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던 조항에서 문제가 나왔고 전 조세특례제한법은 한글자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합격했으니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합격의 정해진다는 건 맞지않는 말인거 같습니다.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말 내가 제대로 준비한 법이 나왔다면 그 문제로 인해 고득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얼마나 시간투자를 하느냐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방대한 양을 외우는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법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V. 마무리

세무사에 합격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수습기간을 거치고 바로 개업을 했습니다. 세무사가 된 이후 저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길고 힘든 수습기간의 보상은 합격 외에는 없을 겁니다. 합격하지 않은 수습기간은 어떤 길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격하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습기간동안 “난 세무사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루에 수십번씩 속으로 외쳤던 생각이 나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는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세무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버리세요. 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세무사가 되어 만나 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직장과 수험생활 사이의 짜릿한 줄타기

강석구

중앙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제 50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장인 강석구라고 합니다. 먼저, 이시간에도 합격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족하기만 제가 세무사시험에 도전하게된 계기는 현 직장과 종사중인 업무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직장을 조금이라도 오랜기간 다니기 위하여는 적기에 승진이 필요하였고, 승진시기에 세무사 같은 전문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이 있다는 회사방침에 따라 세무사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기 때문에 회계사나 세무사같은 직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합격을 위하여는 얼마간의 공부기간이 필요한지 어떠한 과목이 시험과목인지 등의 세부정보는 전혀 모른 채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II. 1차시험 준비

2011년 1월 공부를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강남인근에 세무사전문학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학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살고있는 곳이 강남쪽이기 때문에 집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가 저같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사 전문 교육과정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에 주저하지 않고 기초종합반부터 연간과정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2년 6개월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였지만 경영정보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회계 및 세법은 너무나도 낯선 과목들이었습니다. 차변과 대변밖에 모르던 저에게 재무

회계는 첫 번째 만나는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시작한 1월부터 정규종합반이 시작되는 5월까지의 약 4개월의 시간동안 재무회계의 기초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향후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해당 기간동안 중급회계(상권, 자산·부채·자본편)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특별한 저녁 약속이 없으면 바로 퇴근하여 학원에 들러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에 들어가는 일상을 지겹도록 반복하였습니다. 저는 주말 중 토요일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토요일은 학원수업에 충실하였고 일요일은 토요일 수업내용을 빠르게 복습하였으며, 주중에는 복습한 내용 중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어려웠던 내용을 한번 더 복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해외부 파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토익점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스트레스 없이 필요한 영어점수를 바로 획득하였고 이로인해 회계학 및 세법에 조금 더 매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초반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하고 5월부터 정규 종합반과정에서 기초반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회계학 및 세법 등에 대한 과목을 좀 더 심도있게 수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직장인 수험생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잦은 야근과 회식 등은 수험기간 커다란 장애물이었습니다. 특히, 회식은 다음날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학 및 세법처럼 휘발성이 대단히 강한 과목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넘어야할 큰 산이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주중에 회식 1~2번, 야근 1~2번만 반복하고나면 머릿속이 텅비어버리는 허탈한 느낌을 가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굉장히 열심히 반복한 것 같은데 중급회계 하권을 공부하고 있으면 상권이 생각이 가물가물하고 관리회계 공부하다보면 원가회계파트가 기억이 안나고 소득세 공부하고 있으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배운 것 같은데 내용은 전혀 기억이 안나는 좌절을 수시로 반복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반복하다보니 어느덧 10월말이 되었고 같이 공부를 시작하였던 직장인 동료들이 하나둘씩 학업을 중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나도 “이 공부를 계속 해야하는가”라는 자괴감이 교차하면서 정규 종합반 수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객관식 종합반이 시작되었고 재정학과 상법도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기때 공부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는 수업시간 중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주실 때 먼저 해당문제

를 강의를 듣지 않고 풀어보았으며 풀리지 않은 문제만 강의를 듣고 해당문제만 향후 복습하는 방식으로 복습시간을 줄이고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은 재정학과 상법 공부에 할애를 하였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은 학원에서 수강하였던 모든 부분을 가급적 빠트리지 않고 학습하였으며, 특히나 세법의 법인세파트는 약간의 재미가 붙어 더욱 열심히 하였고 고급회계 파트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1차시험을 보기 2개월전부터는 실제시험에 나오더라도 시간제약상 생략해야할 문제를 선별하는 연습을 병행하였습니다. 열심히 배운 것 같은데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되지않던 과목들이 1차 시험일이 가까워 지면서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결국 학원에서 실시하는 파이널리뷰과정을 끝으로 약 1년 3개월간의 모든 학원의 커리큘럼을 마치고 2012년 4월 1차 시험에 무난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재정학과 상법이라는 고득점 가능과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직전 2~3개월정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정해진 학원의 커리큘럼만 잘 쫓아가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들 합격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 시험의 경우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은 회계학이므로 회계학 과락방지를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많은 수험생들이 1차 시험의 회계학 과목에서 재무회계와 원가관리회계 중 어떤 파트를 먼저 풀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있는 파트부터 푸는 것이 정답이지만 정해진 짧은 시간안에 풀기 위하여는 개인적으로 재무회계를 먼저 푸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회계는 대다수의 문제들이 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순간 풀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가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원가관리회계는 문제자체가 정형화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제를 이해하는데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풀다가 포기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Ⅲ. 동차준비

1차시험이 끝난후 가채점결과 합격이 예상되어 1주일정도 휴식을 취한후 1차준비를 하였던 동일학원의 동차반에 접수를 하고 2차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동차반 개강일로부터 2차 시험일까지는 약 90일정도가 남아있었습니다. 세법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되어 약간 걱정스러운면도 있었으나 1차 시험의 무난한 합격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2차 시험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1차 시험에서 준비한 내용에 더하여 1차 세법 공부시에 접하지 못한 상증세, 개별소비세 등 몇가지 세목만 준비하여 2차시험에 임하면 좋은 점수는 아니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2차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바쁜 직장일로 1차시험 준비때와는 다르게 몸도 마음도 서서히 지쳐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시험준비 시간도 부족한데 2차시험 직전에 장기간 해외출장까지 겹치면서 세법학은 모의고사나 판례집 등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상태에서 중요파트의 법령내용만 단순 암기하여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회계학 1부와 2부는 1차 시험을 준비한 실력으로 평균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나 세법학의 경우 알팍한 지식으로 직장에서 기해보고서 작성하듯이 나름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였지만 여지없이 과락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Ⅳ. 유예생활

2차시험 불합격 소식을 확인한 이후 바로 다음날 유예종합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학원을 다니고 싶었으나 제가 다녔던 학원은 유예종합반이 개설되지 않는 관계로 종로에 위치한 같은 계열사의 우리경영학원의 유예종합반에 등록하였습니다.

1차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회계학이라면 2차시험의 경우는 세법학입니다. 동차에 실패한 원인을 나름 분석한 결과 2차의 당락을 결정하는 세법학 준비가 가장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유예공부를 시작한 직후부터 세법학 이론

서를 충실히 반복 학습하였습니다. 물론, 유예시작이후 첫 3개월은 회계학 이후 3개월은 세무회계 마지막 3개월은 세법학을 중점과목으로 선정하고 학습하였으나 세법학의 난해함을 동차때 경험한 저로서는 세법학을 처음 시작부터 조금씩 꾸준히 공부하였습니다.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및 세무회계는 학원에서 수업하였던 연습서를 계속해서 문제를 다 외울정도까지 반복하여 풀었지만 직장생활로 인한 학습시간 부족으로 고생하였기에, 점심시간 및 퇴근시간 그리고 새벽시간을 적극 이용하여 학습에 몰두하였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회계학 1부 및 2부는 어느정도 틀이 잡혀가는 것을 느꼈으나 세법학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아 고민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출제예상 문제들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기본서만 정독하다 보니 공부해야할 양도 방대하고 어디까지 암기하고 있어야할지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세무사시험은 대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는 다르게 자격시험이니만큼 무조건 많이 쓴다고 성의를 생각하여 일정점수는 절대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2차시험 3개월전부터는 사례형 문제중심으로 논점이탈 방지 및 결론을 맞추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2차시험에 임할 정도의 수험생이라면 모두 관계법령은 어느정도 서술할 것이라면 결국 사례형문제의 결론이 맞는 수험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모의고사집을 구입하여 답안내용을 가리고 난후 답안지에 목차기술 및 결론을 적는 연습을 반복하였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세법학이라는 예측불가능 과목 때문에 고민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무조건 암기도 해보고 판례집도 열심히 읽어보고 하였으나 실제 시험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가장좋은 세법학 공부방법은 스스로 많이 고민하면서 각종 사례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는 것이 좋으나 이는 경험이 부족한 많은 수험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서를 수차례 정독한 이후 모의고사집을 통하여 기계적으로라도 결론을 맞추는 연습을 반복하는 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법학 2부도 사례형 문제들이 출제되는 상황이니 더욱 더 공부방향을 잡기가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유예종합반은 주말 이틀동안 늦은 저녁시간까지 모두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 직장인인 저로서는 복습할 시간이 턱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하는 동료 전업수험생들을 보면서 자신감도 점점 없어져만 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온 마당에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걸어 다니면서 공부한 내용을 혼자서 저 스스로에게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다녔는데 이것이 기억에도 오래남고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2차시험 직전에는 각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입수하여 풀어봄으로써 감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2차시험에 좋은 점수는 아니지만 무사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동차 실패 후 유예생활을 겪으면서 2차시험 준비는 1차시험 준비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몇배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록 동차에 실패하였지만 이 글을 읽는 수험생분들은 힘들더라도 동차의 기회를 꼭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V. 마치며

약 2년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한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고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여도 또한 회식을 하여도 맘 편히 할 수 있으니 갑자기 모든게 행복해 진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들은 힘들었지만 이러한 직장인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소중하게 깨닫게 해준 고마운 시간들이라고 자위해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속히 합격하시어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수험기간중 도움을 받은 고마운 분들과 직장인으로서 저의 수험생활 몇가지 Tip을 소개하면서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의 짜릿한 줄타기에 마침표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분들

수험기간동안 주중에는 직장평계로, 주말에는 학원평계로 근처에 계시는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죄송스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못난 아들을 믿고 성원해주신 부모님께 가장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차변 대변도 제대로 구분 못하는 저에게 회계학의 기본토대를 마련해주신 김강호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수업시간에도 불구하고 기본서의 거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열성으로 빠른 시간안에 재무회계의 응용력을 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유예기간중 세법학이라는 과목의 넓은 시야를 갖추게 해주신 정연대 세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업 중 너무나도 깊이있는 부분까지 강의를 해주시는 바람에 선뜻 이해가 되지않아 나름 좌절도 하였으나 결국 시험장에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험기간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공부하였으나 약간의 운이 부족하여 올해는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학원 동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직장인으로서 수험생활 Tip

- ① 조금해하지 않기 : 스트레스만 받음
- ② 동영상강의 맹신하지 않기 : 자칫하다간 부족한 공부시간만 날림
- ③ 출퇴근시간 적극 활용하기 :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기억됨
- ④ 꾸준히 & 몰아치기 하지 않기 : 이 시험은 감이 정말 중요함
- ⑤ 과감한 스킵 : 백점이 필요한 시험이 아님(연계된 주제는 스킵하면 안됨)
- ⑥ 생각하면서 풀기 : 회계학, 세법은 숫자외우는 시험이 아님
- ⑦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의 중심잡기 :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황이 힘들어짐
- ⑧ 힘든날은 과감하게 책 덮기 : 맥주 한잔하고 일찍 자는게 상책임
- ⑨ 예습생략 & 복습필수 : 복습만이 살 길임
- ⑩ 끝까지 버티기 : 머리 좋은 사람만이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면 어느새 끝에 와있음.

38세 늦각이 삼수생의 합격수기

장종진

제 49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합격자 발표가 난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도 합격소식을 전할 때의 부모님의 눈물어린 축하가 잊혀지지 않네요. 긴 수험생활로 어려움이 많았던 탓인지 합격의 기쁨도 더 큰 거 같습니다.

1. 공부과정

(I) 동차시절

2009년 5월 세무사의 꿈을 안고 아이파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세무사를 목표로 삼은 것은 전문직으로서 매력도 있고 평생직업으로서 충분히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중이라 아이파에서 기초반, 심화반, 객관식반을 합쳐 연간 주말종합반을 신청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살다보니 토요일마다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 시험공부를 하면서 벽에 부딪힌 것은 토익이었습니다. 영어공부를 안 한지 가 15년이 넘어서인지 단어도 생소하고 듣기도 무척 어려웠습니다. 첫 시험에선 500점을 맞았고 둘째 시험에선 650점, 세 번째엔 690점 결국 네 번째에 725점으로 11월에 합격했습니다.

1차 시험을 두 달 앞두고 공부에 올인하기 위해 2010년 2월에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1차 시험은 대전에서 봤습니다. 시험 전날 잠을 충분히 못 잔 탓에 비봉사몽 청주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문제도 어려웠고 첫 도전이라 긴장도 많이 됐습니다. 다행히 회계학은 재무회계에서 김정호 교수님이 찍어주신 이론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원가도 몇 문제 풀어서 50점을 맞았네요. 세법학개론은 55점, 재정학 70점, 상법 90점으로 1차에 합격했습니다.

2차 시험은 준비부터 어려웠습니다. 3개월 남짓한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공부의 깊이가 부족해서 결국 떨어졌습니다. 회계학1부 45점, 회계학2부 41점, 세법학1부 53점, 세법학 2부 35점으로 과락에다 커트라인에도 못 미쳤습니다.

(2) 유예시절

2010년 2차 시험이 끝난 후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햄, 만두 등을 납품하는 유통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2.5톤 화물차를 끌고 충북 전체를 돌아다니면서도 10월에 합격하면 그만두고 수습을 가야지 하는 꿈을 꿔지만 결국 헛된 기대에 불과했네요.

유예 2차 시험공부를 해야 했지만 가정이 있다 보니 직장을 그만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햄박스, 떡박스, 만두박스를 나르고, 보통 100km 이상 운전하다보니 집에 오면 파김치가 되어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2011년 3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치질수술을 하는 바람에 3월도 그냥 가고 본격적으로 4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네요.

2011년 유예2차 시험을 마치고 난 뒤 그래도 동차 때보다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불행하게도 세법학1부에서 과락이 나와 평균은 커트라인을 넘었지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3) 삼수시절

2011년 2차 시험이 끝나고 혹시나 합격할 수도 있으니 이번에는 알바라도 좀 하자는 생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보통 저녁 8시에 나가 새벽 2~3시까지 일했네요. 반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대리기사를 자기 부하처럼 대하는 사람, 술에 만취한 사람, 바람피우는 사람 등 별별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하루는 체어맨을 가진 손님 차를 뺐는데 직업이 뭘지 궁금해했습니다. 손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도 고생 많이 했는데 40대 초반에 회계사에 합격해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언젠가는 세무사에 합격해서 이 사람처럼 성공해야지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유예 2차에 떨어진 후 공부를 계속하기도 막막했습니다. 토익시험부터 1차, 2차를 다 준비해야 돼서 머리가 아주 지끈거렸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탓에 대리운전을 그만둘 수도 없었고 공부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노력한 게 너무 아까웠죠.

10월부터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계속 대리운전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경야독이 아니라 주독야경 생활을 했네요. 먼저 토익과 1차시험 위주로 준비했죠. 1차시험 공부도 2년이 지난 탓에 새로 하는거나 마찬가지로였고 1차는 문제푸는 속도가 중요하다보니 공부가 쉽지 않더군요.

2012년 1월부터는 다행히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고 다행히 회계학 1부 63점, 회계학 2부 68점, 세법학1부 50점, 세법학2부 58점으로 2012년 세무사2차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 과목별 공부방법

(1) 재무회계

1차와 2차에 걸쳐 아주 중요한 전략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준비를 위해선 이론문제를 우선으로 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1차는 정확히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연습이 더 중요합니다. 보통 한 문제당 1~2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하면 1차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는 분개부터 풀이과정까지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암기식으로 공부하기 보다는 원리를 이해해야죠. 공부할 때 답을 보지 않고 실전처럼 문제를 정확히 푼 다음에 채점을 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틀린 문제는 또 틀리게 되는데 그럴 땐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완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 원가회계

원가도 1,2차 공히 중요하죠. 저는 김영주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기초를 닦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거 같습니다. 1차는 기본서와 객관식 기출문제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차 준비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원가도 재무회계와 마찬가지로 답을 보지 않고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오답노트도 만들었고, 핵심적인 내용

은 서브노트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3) 세법개론

1차 준비는 이론문제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기타세법 위주로 준비하면 될 거 같습니다. 1차는 이론문제에 집중해서 연습하고 계산문제는 기본적인 것들 소득세, 부가가치세만 잘 풀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문제집을 3~4회 반복적으로 풀고 오답에 대해선 기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4) 세무회계(회계학2부)

법인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다 공부의 양도 많고 깊이도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제일 피곤한 과목이죠. 우선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해 놓고 법인세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연습서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를 4~5회는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계속 틀리는 문제는 오답노트를 만들었구요. 무엇보다 실전처럼 푸는 연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른다고 답만 보고 눈으로 읽다보면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5) 세법학 1부

세법학은 기본적으로 각 법별로 서브노트를 따로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서브노트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어떤 주제에 대해 목차와 핵심내용 정도를 요약했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론은 당연히 연습을 통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예상문제를 뽑아 스스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준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문제는 2차 세법학 교재에 있는 판례와 연습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사례에 있어서는 결론이 중요하다보니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각 문제마다 어떤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출제의 핵심포인트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6) 세법학 2부

세법학 2부도 서브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이론과 사례 모두 중요하죠. 배점이 크다보니 이론도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고 사례문제도 대비해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1차때부터 하다보니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2차시험에서 쓰라고 하면 쓰기 힘든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확실하게 알려면 모의고사처럼 계속 써 볼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지방세법은 사례문제가 많이 나오다보니 좀 까다롭네요. 먼저 외우고 사례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조세제한특례법은 암기가 기본이죠. 전체를 모두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은 다 외우고 서브노트 만들고 사례도 풀어보고 완전 노가다 과목입니다. 합격을 위해선 피할 수 없는 산입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겹더라도 반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3. 마침표를 찍으며

수험기간동안 추억도 많네요. 2009년 원가회계 김영주 교수님을 모시고 동기들과 함께 갔던 1박2일 양평여행은 지금도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들려주신 인생 경험담이 제게는 아주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저를 지도해 주신 아이파의 김정호 교수님, 김영주 교수님, 조정조 박사님, 양성희 교수님, 정태덕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어려운 공부를 그나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년이 넘는 수험기간동안 저를 응원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동차 합격에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윤누리

제 4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연소 합격

안녕하세요. 제 49회 세무사 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한 윤누리라고 합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누구에게나 단기 합격은 정말로 절실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이제 막 첫발을 디딘 예비 세무사로서 미흡하나마 많은 세무사 수험생들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 동차합격에 있어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① 장기적 관점에서의 준비

단기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준비와중에 일부 2차 과목을 병행하였습니다. 다른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범위를 초과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회계학1·2부또한 결국 1차 과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해당 과목의 70%는 1차 이전에 마무리했으며, 덕분에 3개월간의 2차 준비기간에 세법학 1·2부에 정말, 부담 없이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② 평가

항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학습을 항해에 비유한다면 주위의 객관적인 평가나 조력 없는 학습은 지표 없는 망망대해를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과목의 편향적인 정도가 굉장히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균형 있는 공부를 하는데 있어 학원의 도움이 정말로 컸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교수님들께 다소 무례해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수업을 항상 대답으로 (속된 말로 나대는 정도로) 일관했습니다. 오답을 말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수업 시간 내내 긴장을 했고, 진도 이전에 최소 3회 이상의 선행을 준비를 하여, 결과적으로 수업내용의 90%은 현장에서 확실하게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시험으로 현재 위치한 자리를 가늠할 수 있어 공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했으며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③ 전략과목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 것

전략은 중요합니다. 다만 전략에만 ‘너무’ 치중한 학습은 그다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차 응시 전 3개월 전부터 상법과 재정학을 준비하였으나 세법과 회계를 최우선순위로 하였기 때문에 1차에 있어서 합격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광범위한 분량을 자랑하는 세법학을 무난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3개월을 내리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므로 1차에 있어 회계학 1·2부 전반을 끝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전략에 치중하지 않는 것이 득이 될지언정 오히려 해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2) 과목별 코멘트

세법

문제의 정형성을 단정 짓기 가장 난해한 과목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지나치는 챗터 없이 포괄적인 공부를 했습니다. 실체법을 제외한 절차법만을 두고 보았을 때 시간과 노력의 투입비율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로, 수험생들이 가장 난항을 겪는 법인세를 우선적으로 쫓다보니 이후 소득세 등을 공부하는 데 있어 자신감이 고무되었으며 이해에도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수험 초기에 실무에 관련한 지식 및 경험이 전무했으므로 이론적 틀이 없었고 따라서 최선이 아닌 차선에 해당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대개, 이론 내용을 먼저 적립한 이후에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지만,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특히 계산형) 결국 이론을 어떻게 실례에 있어 적용하는 것인가, 였기 때문에 이론에 대한 고도 이해는 잠시 뒤로하고 오히려 문제에 대한 친숙도를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수험을 시작한지 6개월이 되던 때에 세무회계를 토대로 세무조정과정을 익혔으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은 풀이방법을 ‘외워서’ 라도 익숙해지려 노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해에 있어 가장 난점으로 느꼈었던 최저한세와 퇴직급여/연금충당금이 약 6~7회 정도의 풀이부터 점차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선두로하여 이론 독파에 있어서도 점차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수험의 후반으로 갈수록 풀이보다는 이론중점적인 공부를 하였는데 초기에 문제 풀이 위주의 공부가 이해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없애 주었습니다.

재무회계

서술형 문제의 경우 대체로 기준서의 문구를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독이 정말로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독 1차에 많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과목에 있어서나 현재 지면상의 내용이 후반의 내용이 보조가 되어야 이해가 되는 내용이 있는 반면, 후반과 동일한 논리로서 이해가 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회독 4-5차에서 부터는 회전율을 늘리기 위해 활자의 문구 하나하나를 탐색하는 것이 아닌 문단의 덩어리로서 인지를 해나갔습니다. 가령 페이지 101의 좌측 상방의 문단은 A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라고 식별할 수 있다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그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는 되어있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이전 회독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어 정밀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형 문제의 경우 동일한 문제를 최소 10회 이상은 직접 손으로 풀었습니다. 매회 풀이방향의 연상에 있어 조력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론서는 스스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기로 지면이 번잡했던 반면 문제지는 절대로 더럽혀가며 풀지 않았고 답안에도 의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문제라하여 풀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수 회의 풀이를 통하여 자구적으로도 문제 도출과정을 단축하는 방법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진다면 정말로 많이 풀어보는 것이 점수 획득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세법학 1·2부

분량이 워낙에 방대하다보니 출제 포인트도 워낙에 가변적이고 변칙적이어서 수험생들을 가장 곤란하게 하지 않는 과목이 아닐까 합니다. 판례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적 근거는 당연히 동반되는 것이므로 빈출 챕터의 경우 최소, 해당 내용에 관련한 이론적 프레임을 다른 무엇을 참조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수험생활로 인해 법적인 판단능력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최소 책을 이해하고 모사하여 쓰는 것에 1차적으로 전력했고, 일부 판례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판단근거를 준용하여 서술했습니다. 과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턱없이 부족할 것

입니다, 때문에 전략적인 방법이 가장 요구되는 과목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회계학 1·2부를 앞서 준비하면서 2차 준비기간 동안에 순수하게 세법학에만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해 두었던 것이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서술한 내용은 합격을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으며, 글을 읽어 주신 세무사 수험생 분들에게도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가족과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아이파 교수님들, 48회 세무사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박중영

48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안녕하세요. 저는 ○○○○○공사에 재직 중인 박중영입니다. 2010년 2월 세무사 1차 특별반을 시작으로 2011년 7월 2차 동차반 수강을 끝으로, 아이파의 정규코스를 밟아 동차 합격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1년 6개월의 빠른 기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세무사에 미칠 정도의 열정"과 "합격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제 부족한 합격수기가 세무사를 준비하는 직장인분들에게 합격에 대한 희망과 공부에 대한 열정을 드리는데 조그만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I. 1차 시험

1. 회계학 - 예습과 다독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2차 시험에도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위한 저의 공부방법은 기본서 다독과 예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챕터가 없었습니다. 처음 읽었을 땐 70% 이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해않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회독 수를 늘려다 보니 어느덧 이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한 예습으로 수업시간 선생님의 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객관식 과정 들어가기 한달전에 문제집을 사서 미리 예습하고, 수업시간에 정리와 복습, 총 5회 이상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2. 세법 - 예습과 다독, 법인세 포기하지 않기 (동차의 열쇠)

세법도 2차의 3과목을 차지하는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1차부터 철저히 공부했습니다. 10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위주로 기본서를 10회 정도 반복했습니다. 이해가 안되더라도 기본서를 꾸준히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법인세는 제 머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5회독하였는데도 간단한 세무조정 문제도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인강으로 세무회계를 수강하였습니다. 전 동차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세무회계를 3회독하였습니다. 동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세법 기본서를 충분히 보신 후 세무회계를 미리 예습하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국세기본법 등 잡법은 11월부터 꾸준히 기본서를 읽고 외웠습니다. 잡법만으로 세법 점수를 얻으려는 생각은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잡법을 공부하실 때도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하루에 30분 정도 공부해서 감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12월부터는 객관식 책을 위주로 했습니다. 객관식 책에 나와있는 이론 요약과 문제를 5회 이상 반복해서 외우고 풀었습니다.

3. 재정학 - 복습과 문제풀이

전공이 경제학이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학원 진도따라 복습하고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문제와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면 70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상법 - 상법전 다독

상법은 1차 평균점수를 올리는 효자 과목입니다. 단순한 암기이기 때문에 득점 향상도 타과목에 쉽습니다. 그렇다고 1차 시험 임박해서 준비해서는 않됩니다. 저는 학원 수업 진도따라 복습하고 3월부터 상법전(○/×문제)만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상법전을 다독하면 80점 이상 득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II. 2차 시험

1. 회계학 1부 - 1차 실력으로

1차 재무회계와 원가회계를 충분히 공부하신 분들은 별도의 2차 공부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객관식에서 주관식으로 답안 작성 요령만 터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 2차 시험의 추세도 객관식화 되고 있습니다. 풀이 과정이 이상하더라도 답이 맞으면 득점을 주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풀어 답을 맞추는 능력을 1차때부터 키워야 합니다. 다시 한번 1차때부터 기본기를 탄탄히 하시길 강조드립니다.

2. 회계학 2부 - 선생님을 믿는 것과 세법학 1부의 연결 공부

1차 세법을 충분히 공부했던 분들도 회계학2부(세무회계)는 생소하여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 지 헤메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전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이 하라는 것만 공부하고 복습했습니다. 숙제도 열심히 풀고, 실력이 안되도 모의고사를 통해 답안

지 작성하는 요령을 배웠습니다. 회계학 2부도 회계학 1부처럼 객관식화 되어가기 때문에 세무조정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능력을 키워야합니다. 따라서 대충 많이 아는 것보다 기본적인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동차는 회계학2부와 세법학2부에 집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회계 기본서와 문제를 다독·반복하면 세법학1부(법인세, 소득세, 상속세)를 어느정도 커버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계학 2부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3. 세법학 1부 - 세무회계로 커버+선생님 짚어준 토픽 정리+모의고사 풀이 반복

세무회계 공부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상속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토픽을 정해주셨습니다. 그 토픽만 2차 답안 형식으로 정리를 하였고, 시험 2주전에는 정리노트를 보며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매주 모의고사 문제 풀이로 답안 작성의 요령도 익혔습니다.

4. 세법학 2부 - 정리노트 만들기 + 모의고사 풀이 반복

세법학은 기본서를 보면서 각 법별로 정리노트를 만들었고, 이것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매주 선생님께서 내주신 모의고사도 실천처럼 풀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스킵하는 부분없이 전 범위를 정리하였지만, 나머지 법은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법학 2부의 가장 큰 걸림돌은 조특법일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준 것만 정리해서 반복했습니다. 조특법은 일관된 틀이 있기 때문에 정리한 주제들을 3번정도 반복하다 보면, 그 틀을 숙지하게 되어 모르는 주제가 시험에 나오더라도 답안지 1장 정도는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법학 2부는 내가 공부한 곳에서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차일 때.

Ⅲ. 직장인 수험 생활

1. 단순하게 생활하기

저는 수험기간 동안 직장-학원-집을 활동반경으로 최대한 생활을 단순화시켰습니다.

2. 업무시간내 집중하여 일처리 (아근하지 않기)

업무시간에 일을 최대한 집중하여 처리하고 6시 이전에 업무를 끝내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팀장님은 자기 일 마무리하면 일찍 퇴근하라는 합리적이고 아주 좋은 분이셔서 야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주중에 평균 3시간 이상 공부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주중 새벽과 주말 공부 시간 확보하기

직장인은 전업 수업생보다 절대 공부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말 공부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전 토요일은 무조건 학원 자습실에서 10시간, 일요일은 학원 수업을 들으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중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1시간 30분동안 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4. 직장 동료들에게 더 잘하기

제가 세무사 공부하는 것을 직장 동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업무도 열심히 했을 뿐 아니라, 동료들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더 배려하고, 힘든 일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5. 동차 합격에 대한 믿음

저는 직장을 다녔지만 1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유예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진 소리로 들리겠지만 동차 합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동차 합격한다”는 약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간절함과 자신감이 동차 합격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 수험생분들도 처음부터 유예를 생각하지 마시고 동차 합격을 목표로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IV. 감사의 글

우선 부모님과 가족, 직장선배 및 동료, 아이파 선생님들 덕분에 부족한 제가 합격의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받은 것을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분들 뿐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는 능력있고 따뜻한 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하여

황연익

제 47회 세무사 시험 합격

1. 들어가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번 제 47회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황연익 입니다.

세무사 시험은 직장인들은 누구나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일을 하면서 어느순간 부터 매일 반복되는 일상 업무의 무료함과 미래 직장 생활의 불확실성으로 무언가를 찾게 되는 과정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회사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관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극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한 건 2007년 10월경입니다. 세법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를 해 보고 싶은 욕심에 세법관련 강의를 찾던중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세무사 시험 커리큘럼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세무사... 무언가에 몰입할 것을 찾던 저에게는 아주 적합한 자격증이었고, 혹시나 안되더라도 회계, 세법에 대한 깊이있는 공부가 가능할 것 같아 무작정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주말과 평일 야간을 이용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2008년 시험준비를 했습니다. 나를 열심히 했지만 직장생활과 자격시험을 병행하는 것은 역시 쉽지가 않았습니다. 2008년 시험은 결국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일도 바빠지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계속 시험준비를 하지는 못하고 다시 몇 개월 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11월 IFRS도입에 따른 회계제도 변경을 공부하기 위해 중급회계를 수강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이슈가 있을때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해서 중급회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다가오니 작년 이루지 못했던 세무사의 꿈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차피 관련업무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세무사 시험은 그런 저에게 매우 매력적인 목표이자 꿈이었습니다. 결국 2010년 4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그해 7월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최종 합격을 하였습니다.

저와같이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세무사의 길을 열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그만 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2. 수험 공부

직장생활과 수험공부를 병행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시간관리를 조금만 하지 않아도 언제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게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특히나 피곤한 몸으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면서 공부시간까지 빼서 수험공부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시험공부를 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면 출퇴근 시간만큼 하루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적은 핸드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외우시면 의외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퇴근 이후에도 되도록이면 집에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을 이용해서 회계학이나 세법의 계산문제 등을 공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1차 시험 과목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기본적인 회계와 세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 회계학이나 세법 공부를 하는데 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험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실무에서는 잘 접하지 않는 세세한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비전공자이시거나 비관련분야에서 일하시는 직장인 분들은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회계학과 세법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차 시험이 다가오면 고득점 전략과목인 재정학과 상법에 투입해야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니 그 이전에 어떻게든 기본과목의 실력을 어느정도 쌓아두셔야 시험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강의하는 파이널리뷰 같은 특강을 이용하여 최종 정리하는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①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직장에서 회계업무를 수행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세법과 더불어 1차 시험에서 과락이 가장 잘 나오는 과목입니다.

재무회계는 서술형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IFRS 각 조항을 자세히 분석하여 핵심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원가관리회계는 서술형 보다는 계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이 계산문제를 얼마나 많이 맞힐 수 있느냐에 따라 과락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원가 관리회계의 계산문제를 두루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세법 개론

1차 시험에서 세법개론은 계산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특히, 잡법이라 불리는 국세기본법, 국세 징수법, 조세법처벌법,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기본서에서 분리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히 외워두면 1차 시험에 있어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법에 관한 공부를 미리 하신 분이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차 객관식 준비를 본격으로 하는 1월 이전에 세무회계를 미리 공부하여 두시면 1차 계산형 문제와 2차 회계학 2부를 준비를 하시는데 훨씬 수월합니다.

③ 재정학과 상법

이 두 과목은 1차 시험의 전략 과목으로서 반드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12월까지의 기본서를 익히는데 중점을 두시고 1월부터는 객관식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문제의 유형을 익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과목의 경우, 시험문제의 대부분은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하여 나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다독하여 풀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1차 시험에서 당부 드리는 말씀

첫째, 영어 TOEIC은 미리 시험을 보자.

- 영어를 통과하지 못해 1차 시험 접수 전달까지 시험을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잘못하면 그 해 시험을 치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 접수일을 잊지 말자

- 우습게 들리시겠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시험 접수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셋째,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해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동차를 위하여 1차와 2차 시험 모두 해당되는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맞지만, 1차 시험일이 다가오면 전락과목(상법, 재정학)에 더욱 집중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넷째, 학원 강의와 동영상 강의를 적극 이용하자.

- 본인에게 맞는 커리큘럼이 있는 학원을 등록하여 수업을 듣고 부족한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보완하면 복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과목은 각각의 대문제 속에 소문제 몇 항으로 구성되어 치루게 됩니다. 특히, 회계학 1부와 2부는 소문제를 차례로 풀어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 만약, 첫번째 소문제를 틀리게 되면 전체 문제가 0점 처리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서, 회계학 1부와 2부를 공부하실 때에는 순서에 따라 차근 차근 문제를 풀고, 계산의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법학 1부와 2부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기술하는 부분과 그런 법령을 이용하여 사례를 논리에 맞게 서술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법령을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회계학 1부

첫 시간에 치는 회계학 1부 시험에서는 재무회계 2문제, 원가관리회계 2문제가 각각 출제되며 각 문제 속에 소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 범위는 워낙 넓고

문제 수는 적어 공부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번 문제를 풀다 보면 항상 틀리는 부분에서 또다시 틀리는 우를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확실히 안다고 생각되는 문제는 핵심사항만 정리하고 매번 실수하는 부분은 수회 반복하여 풀어 보았습니다.

② 회계학 2부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세무회계 능력을 평가하는 회계학 2부에 있어 많은 수험생 분들이 법인세 보다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전략 득점과목으로 하여 공부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 원하시는데로 소득세와 부가세를 다 맞추시면 문제가 없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번째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체가 다 틀어지는 문제 출제 방식이 특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무회계입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초기에는 법인세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진행하여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고 후반에 들어 소득세와 부가세 공부의 비중을 늘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③ 세법학 1부와 2부

세법학은 공부할 양도 방대하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점수도 가장 안나오는 과목입니다. 게다가,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험을 보고 난 뒤에 본인의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시험입니다. 그리고 세법학은 관련 규정을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과 그런 규정을 이용하여 사례를 적용하여 기술하는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하고 있어 과락을 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동차를 준비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암기하는 시간도 부족한 편인데 사례를 적용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교재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기법,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1차 시험 수험서인 세법책과 세무회계의 문제풀이 부분을 병행하여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부분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을 익혔습니다.

◎ 2차 시험에서 당부 드리는 말씀

첫째, 너무 한 과목에 집중하여 공부하지 말자.

만약 그 과목의 시험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게 나올 경우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둘째, 각 과목에서 전략적으로 공부할 부분을 정하되 절대 다른 부분을 포기하지 말자.

시험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셋째, 세법학 시험은 반드시 법령은 모두 기술한다.

사례형의 경우 논리적 기술이 중요하지만, 기본은 그 사례에 맞는 법조문과 그에 따른 내용을 적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 모르는 것 전부 짚어짜서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넷째, 시험 당일 각 시간의 결과에 얽매이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자.

1교시 시험을 엉망으로 보더라도 나머지 시험을 잘 치르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3.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제가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을 미약한 글 솜씨로 적어 보았습니다. 제가 쓴 이 글이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는 믿고 따라주는 가족과 친구, 동료들이 있습니다. 힘드실 때 그들에게 기대어 잠시나마 안식을 취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생활과 수험생활을 병행하면서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항상 믿고 따라준 저의 가족과 격려를 잊지 않았던 이사님,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이회계사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립니다.

Now, It's time to start

정윤덕

제 4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졸업

2008년 4월 아이파 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과정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해당 설명회에 참석인원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 참석 예약을 받았었는데, 제가 2008년도 세무사 설명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메일을 쓰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2007년 4월경 같은 방의 같은 책상에서, 같은 컴퓨터로 설명회참석예약을 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1년 전에도 같은 이유로 세무사를 준비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내년, 내후년에도 같은 고민만 하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시작을 해야겠다고 다짐 했고, 5월부터 시작하는 기본이론 종합반부터 수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 1차 시험준비

2009년 시험부터 토익이 도입되었는데, 토익성적이 준비되어있었던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다른 준비생들이 토익 공부에 신경을 많이 쓸 때 저는 다른 과목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면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토익을 준비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1차 준비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장 부족한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체력이 그다지 좋지 않아 평일에는 공부시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말은 무조건 반납하자고 생각했고, 복습은 못하더라도 학원 수업은 절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말 위주로만 공부하다 보니 복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었지만 직장인 위주로 강의를 하던 아이파에서 공부하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조언해주시는데로만 하면 합격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 큰 의심 없이 공부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세무사 시험에 대해서 너무 모른 채 겁 없이 준비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또 그랬었기에 비교적 단기간에 가능했던 것도 같습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회계학의 경우, 어찌파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풀 수 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므로 시간투입대비 출제빈도가 낮은 파트는 스킵하고 저만의 시험 범위로 여러번 반복했습니다. 원가회계는 기출문제집을 여러번 풀었고, 시험일이 다가와서는 평소 정리해두었던 오답노트 및 파트별 주요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실수와 풀이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재정학의 경우, 비록 1차 시험성적은 높진 않았지만 가장 재미있게 공부한 과목이었습니다.

대학교때부터 경제학을 좋아해서 재정학을 처음 접할 때 낯설지 않았고, 재미있게 공부하다 보니 크게 어려움 없이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1회독 시에는 본문을 읽고 내용 이해 후 문제를 풀었고, 한번에 풀리지 않은 문제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만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그 후 2회독시에는 본문 리뷰 후 표시된 문제만 보고 그 문제들 중에서 또 다시 중요문제와 이해가 잘 가지 않거나 틀린문제만 표시하는 식으로 시험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때 볼 문제들을 추린 후 몇 번 반복하여보았습니다.

상법은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과목입니다. 이상수 박사님의 상법전에 관련 내용들을 모두 정리해서 단권화 했고, 시간날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제 방, 화장실 거울 등 눈에 잘 띄는 곳은 잘 외워지지 않는 상법전 내용들을 복사해서 붙여두고 조금이라도 더 외우고자 노력했습니다.

세법은 제가 가장 힘들어 했던 과목입니다. 모두들 공감하는 방대한 양과, 휘발성. 수차례 읽어도 잘 이해가지 않는 조문들.. 시간에 많이 쫓기었기에 어쩔 수 없이 법인세 부분은 많이 스킵하고 부가,소득,기타세 부분을 좀더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09년도 1차 시험은 회계학이 폭탄이었습니다. 회계학만 면과락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기타 과목은 예년에 비해 많이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2. 2차 시험 준비

언젠가 합격수기를 읽었는데, 1차때 스킵했던 부분들이 고스란히 2차 준비 때 부채로 돌아왔다는 글귀를 읽었는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세무사시험의 주관처가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예년보다 2차 시험준비기간이 약 10일정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그 늘어난 시간동안 법인세법과 회계학을 1회독 하겠다고 생각했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2차 시험은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수험생으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두달 반 정도 남기고는 학원근처의 고시원으로 옮겨 최대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잠이 많은 탓에 잠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깨어있는 시간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했었고, 학원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빈 강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탓에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차 공부를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과목은 세무회계였습니다. 세무회계를 잘하면 세법학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듯하였고, 세법학의 논제를 많이 커버하

지 못하는 동차생으로써는 세무회계에서 어느정도 고득점을 해줘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법인세를 보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고, 약 40일 정도 남기고는 모의고사 문제를 1-2회씩 매일 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들어 과연 이방법대로 하는 것이 맞나 하는 회의도 많이 들었지만 모두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것보다 문제를 풀면서 틀려가면서 이해하고, 틀린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본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법학은 여느 동차생들과 마찬가지로 주요 논제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주요 논제는 직접 정리 하였고, 정리한 내용 중 암기가 잘 안되는 부분과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제는 제가 녹음해서 이동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직접 써보는 연습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회계학은 학원에서 내주시는 프린터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세무회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고, 세법학이라는 과목도 처음 접하는 과목이었기에 회계학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주시는 프린터 위주로 정리하고, 한번 반복할 때 어렵지 않게 풀린 문제는 버리고 잘 안풀리는 문제는 체크한뒤 다음에 또 풀어보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해당 챕터를 전체적으로 다루는 문제 위주로 한 챕터당 한 두문제만 철해두고 시험 일주일정도 전부터 두세번 정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공부할 때 시험 전 일주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에 그 때 반복하여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그 자료들이 마지막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 보다 프린터물이나 교재 등에서 한번 보고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나, 한 파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주는 문제들은 남기고 회독수를 늘릴때 점차 그 문제들을 줄여나가면서 계속 반복하여 보는 방법으로 1,2차 모두 준비했었고, 이런 방법이 합격이라는 결과를 빨리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당일 이상하게도 별로 떨리지 않고 담담한 기분이었습니다. 회계학, 세

법학 2부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출제되어 많이 당황하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는 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 쓰고 나오자는 생각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하였습니다.

결과는 합격. 물론 준비 시간이 길지 않았던 탓에 고득점은 하지 못하였지만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천운이 따라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운이 따라줬다고 한들,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간에 포기 했었더라면 세무사라는 자격은 결코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준비를 해볼까 고민을 하거나, 포기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조금만 힘을 내서 도전해보시기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선배님들의 수기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분들이나 동차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약 영업에서 세무사 합격까지-인생을 바꾼 반년의 투자

연재명

제 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졸업

1. 프롤로그 - 일단 버리고 시작하자

저는 공학을 전공하고 화학회사 연구소를 시작으로 보안회사 영업부를 거쳐 올해 2월까지 제약 회사에서 학술영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로서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는 축복을 받고 있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 안정된 직장을 과감히 버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끝에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단지 6개월간의 수험기간으로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제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첫 번째 목표 - 과락 없이 평균 60점

세무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도 거의 없고 1차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올해 1월 아이파경영아카데미의 세무사 1차 객관식 종합반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합격에 대한 목표 보다는 아이파에서 AICPA 과정을 수강하는 여자 친구의 추천과 시험 과목인 영어, 상법, 세법, 회계 등이 비즈니스에 필수적인 과목들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목표의식이 약해서 인지 첫 2~3주간은 주말 마다 거의 하루 종일 진행 되는 수업이 지겹기도 한데다 기본기 없이 들어간 문제 풀이 반이라 수업 내용을 알아들을 수 없어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원비가 아까워서라도 오기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강의를 이해 하기 위해 무조건 읽어 보고 암기하려 했지만 회계와 세법이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라는 말들을 왜 하는지만 절감한 채 1월을 보냈는데 그나마 1차 시험 출제 유형에 대한 감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2월에는 외국계 제약 회사 특성 상 해외 논문을 자주 검토하다 보니 영어 독해에는 자신이 있어 영어 시험은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겠다는 생각을 한 뒤 1차 시험 전략을 짜 보았습니다.

상 법 : 문제집 반복 암기로 90점 목표

재정학 : 개념 이해 후 문제 연습으로 70점 목표

영 어 : 시험용 voca에는 자신이 없으니 독해 문제와 문법 문제만 풀어 60점 목표

회 계 : 문제 풀이만으로 이해가 가능한 원가 회계와 서술형 문제 위주로 40점 목표

세 법 : 국기법, 국세징수법 등 서술형 문제와 내용이 적은 부가세 위주로 40점 목표

1차 시험은 시간 싸움이라 소득세, 법인세와 재무회계는 알아도 어차피 시간 부족으로 못 풀 것이라는 위안을 삼으며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또한 회계와 세법을 가장 쉬운 16문제만 골라 풀고 스킵한다면 남은 시간으로 상법과 재정학 점수가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포기하니 두어 달 전업으로 공부하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표를 제출하고 업무를 정리하느라 2월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본격적인 전업 수험 생활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해와 응용력이 필요한 재정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 상법과 원가회계, 마지막으로 시험 2주전에 국기법, 부가세 등을 공부한 뒤 시험 전 일주일간은 상법과 재정학을 번갈아 보며 암기 하면서 재무회계 서술형과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는 몇몇 주제들을 보았습니다.

교재는 아이파 종합반에서 쓰이는 교재를 무조건 과목당 한권씩만 붙잡고 매달렸는데 훗날 2차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서 생각하니 학원의 객관식 교재들이 정말 핵심만 잘 집어 주면서 정리가 잘 된 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원가회계와 재무회계는 김영주 회계사님과 김정호 회계사님이 수업 시간에 짚어 준 예상 문제가 적중이 많이 되어 저처럼 기본기 없이 아는 문제만 골라 풀자는 전략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행운이었습니다.

1월말부터 아이파 진도별 3회 모의고사를 보면서 매회 조금씩 성적을 상승시켜 실제 1차 시험 당일에는 상법 92.5점, 재정학 80점, 세법 57.5, 회계 62.5 영어 60점이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진도별로 정해진 부분만을 단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모의고사 문제를 시간 내 푸는 시험 스타일에 익숙해진 점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객관식의 특성상 문제를 정확히 푸는 것 보다 확률 높은 답안을 빨리 찍는 방법이 훨씬 효율적이었다는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3. 두 번째 목표 - 과락 없이 평균 53점

1차 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사실 공부를 계속할 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5월 경 이직이 예정 된 좋은 회사에 자리가 날 것 같았고 세법개론과 중급회계 책부터 보며 기본기를 익혀야 될 것 같은 데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에 과연 가능할까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때처럼 일단 학원부터 등록했습니다. 우선은 돈을 투자해야 몸이 가고 몸이 가야 마음이 움직이니깐요. 2차 시험은 전통 있는 학원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지만 객관식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강사님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나이가 좀 있는 수험생이라 시설 좋고 상대적으로 수험생에게 맞춰서 강의하는 아이파에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고 2차반을 같이 들었던 수강생 중에서 많은 분들이 동차로 붙어서 선택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업으로 매달린 2차반은 조금 심도 있게 진도를 따라가 강의를 따라 잡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고 특히 세무회계 시간에 책에 뻔히 나와 있는 문제 해설 보다는 답안 작성 요령 위주로 강의 하신 이종하 세무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 2차 답안 채점해 보면 대부분이 형편없고 오히려 재무회계나 세무회계는 유예생 보다 동차생이 더 유리하다는 격려를 순진하게 믿고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법학만 버리면 두 달 반의 시간은 회계학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표는 합격이지 수석이 아니니까요.

시간이 부족하여 이왕 건너 뛴 회계와 세법의 기본서는 계속 건너 띄기로 하고 세법학도 우선은 버리자는 마음으로 세무회계 문제집 위주로 공부하며 원가 회계와 재무 회계는 강사님들이 나눠 주시는 예상 문제 프린트만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세법학은 주변 수험생들이 대부분 정정은 세무사님의 세법학 책을 보며 스터디를 하기에 다소 불안하기도 했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두꺼운 서적은 사양해야 될 상황이었기에 노희양 세무사님의 강의를 들으며 감을 잡고 7월에 가서 마지막 2주간 노희양 세무사님의 동차대비 세법학 Sub교재만이라도 달달 외우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차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수업과 병행된 학원의 모의고사를 통해 부분 점수 잘 받는 답안 작성 요령을 익혔고 틈틈이 양성희 회계사님의 세법의 마스터 키라는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며 각 장의 제목과 주제 위주로 암기 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암기

하면 어떻게든 살을 붙여 세법학 열장의 답안지를 소설(?)로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손에 꼭 들어오는 암기용 요약집이 세무회계와 세법학의 과락을 면하게 해주는 마스터 키라 생각하고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노희양 세무사님이 정리해 준 세법학 예상 문제 프린트 위주로 암기하며 감을 잊지 않기 위해 매일 세무회계, 재무회계, 원가회계 문제들을 두 문제 정도씩 풀었습니다.

요행으로 과락만 면하자던 세법학이 노희양 세무사님의 예상 문제가 적중되어 53점 정도의 기대 이상의 성적이 나왔고 역시 기본기가 부족한 회계학 1,2부는 58.5, 49.5의 예상 보다 다소 적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꼴찌라도 좋으니까 합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4. 에필로그 - 수험 생활에 임하는 자세

결과적으로 6개월의 수험기간, 특히 전업으로 4개월여의 수험기간으로 전문 자격시험에 합격한 원인을 제 습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저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니 참조해 주십시오.

첫째, 우선 돈을 투자 하십시오. 흥청망청 써대는 술값에 비하면 얼마 안하는 학원비, 일단 등록하고 나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평소 관심만 가지고 일상에 안주하고 계신 직장인 분들은 반드시 돈을 투자해야 움직이십니다.

둘째, 학원이던 교재 던 일단 선택하면 무조건 믿으십시오. 어차피 자격시험은 entry level 아닙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야 쉬운 내용일 텐데 강의 내용이나 교재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과목당 한 가지 책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전업 수험생은 직장인처럼 생활하십시오. 회사 다닐 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학원 자습실이 문 열기 전에 출근 했으며 저녁 10시 30분 학원 문 닫을 때 퇴근 했습니다. 담배 피는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며 지인들과 안부를 전하고 학원 근처에서 점심 식사 약속을 잡아 술자리로 인한 시간 손실 없이 사회와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후 일과가 끝날 때 쯤 이면 학원 근처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한 뒤 상쾌한 마음으로 저녁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집에 가면 중독성 있는 드라마를 안 보기 위해 TV를 아예 켜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수면 유발 효과가 있는 세법을 읽으며

잠들었습니다.

넷째, 운동도하고 사람도 만나려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제가 움직이는 동선 곳곳에 책을 복사하거나 찢어 놓아 반복적으로 암기 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도 사이클과 러닝머신만을 이용하며 세법을 외웠고 혼자 식사하러 갈 때도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며 읽었습니다. 시험이 임박해 올 때는 점심시간 1시간도 아까워 빵과 우유를 사다 먹으며 공부했고요. 차에도 중요한 내용들을 찢어 놓아 신호 대기 잠깐 동안에도 외웠습니다. 특히 그룹 스터디 위주로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주변 수험생들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럴 시간 없습니다.

다섯 째, 시간이 부족 할수록 더욱 숲을 먼저 보십시오. 처음 교재를 접하면 목차부터 암기해 책의 흐름을 잡습니다. 그리고 속독으로 책장을 넘기며 접속사와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절에 형광펜으로 색칠부터 합니다. 두꺼운 기본서가 아닌 다음에야 두어 시간이면 색칠이 다 되고 책이 너털너털해집니다. 그래야 다음에 여기저기 찾아 볼 때 눈에 잘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수험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합격생들 중에 실무 경험도 많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겠지요. 하지만 저의 목적은 단지 합격이었고 자격시험은 대단히 전문적인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며 합격 커트라인을 목표로 수험 계획을 짜서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리고 선택과 집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 두 명도 아닌 630명 안에는 반드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전략과 최선의 노력, 그리고 약간의 운이 따른다면 누구나 짧은 기간에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잘 것 없는 저도 되지 않았습니까?

직장인도 생동차 합격할 수 있다!!

양문정

제 45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아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졸업

1.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안녕하십니까.

직장인으로써 제 45회 세무사 시험 생동차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양문정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공부를 하면서, 끝없는 고민의 연속이었으며 저를 다잡아가는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모로 운이 좋아서 그 힘든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짧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의 경험담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 세무사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시는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수기를 적어 봅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무역, 회계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공대생이다보니 대학에 재학중일때도 회계쪽은 전혀 접해보지를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보니 무역업무에 회계업무까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라는 업무가 왜 그리 생소하던지요...

업무 때문에 접하게 되었지만 회계나 세법이 회사생활을 잘 하려면 몰라서는 안 되는 분야이고 특히나 여성으로써 사회생활을 하려면 체계적으로 알아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사에서 필요한 실무중심으로 회계를 익혔고요, 이론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회계, 세법 동영상 이론 강의를 째짤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세무사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하고 이직에 도움이 될까 하여 전산세무, 세무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이직을 하려니 어차피 회사에서의 업무라는 것이 비슷한 월급쟁이이며, 현 직장에서의 급여도 적게 받는 편이 아니라 굳이 이직을 할 필요성은 못 느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 여러분은 누구나가 잘 아시겠지만 직장생활 7년의 미혼 여성으로 어찌나 하루하루가 무료하게 느껴지던지요...

저에게는 무료하게 흘러가는 하루하루에 활력이 될 수 있는... 저의 능력을 시험해볼 수 있는 도전거리가 필요했고 사회생활에 있어서 든든한 백이 되어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를 찾던 중에 제가 조금씩 공부한 회계분야, 그리고 사회에서 전문가로써 인정해주고 미래에 나만의 일을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 무모하게... 용감하게...

2007년 12월 세무사라는 자격증이 눈에 들어와서 어렵פות이 마음의 결심이 서자마자 학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찾아보니 아이파경영아카데미가 강남에 위치하여 집에서 가깝고 직장인 위주로 업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로 과정이 잘 짜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고용보험환급과정이라 자금적인 부담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우선 알아보니 영어시험이 2009년부터 토익 점수로 대체된다고 하여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되는 2009년 합격을 목표로 준비하자.. 단, 동기부여와 준비방법을 깨닫기 위해 미리 수업을 들으며 따라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12월 초에 아이파 객관식 종합반 수강 등록을 하였습니다. 사실 객관식 종합반 등록을 하고도 정말 많이 망설였습니다. 공부를 해볼 자신감도 부족했고, 서른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합격하고 나서의 새롭게 시작될 길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드디어 시험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로, 물론 시험준비에 대한 방법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덜컥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가 기회예요..”, “하면 됩니다..” “학원을 믿고 따라오세요.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합격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를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드는 고민, 직장공부를 병행하여 지칠 때 즈음이면 항상 ‘으싸으싸’ 마음을 다 잡아 주시는 종합반 선생님들 덕분에 1차 시험일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실무중심의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지만 세무사라는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거의 알지 못해서 공부 시작 이후에는 학원을 믿고 따라가자고 단순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무사 시험에 대하여 잘 알았다면 이렇게 까지 빨리 붙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 수업과 진도만 부지런히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지,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조차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3. 1차 시험 준비

2008년 1월부터 시험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1차 시험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 위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부터는 학원 강의시간에 풀어주는 문제와 진도별 3회 모의고사, 그리고 타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을 구매하여 일주일에 한 두번 씩 모의고사를 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분들이나 공부를 마음먹고 계신 분들은 기본서를 가급적 여러 번 반복하여 기초를 탄탄히 하신 후 1월 경 부터는 역시 반복된 객관식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등으로 시험 감각을 익혀나가는 게 1차 시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계, 세법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업을 소화시키지 못할 경우 다음 수업 전에 꼭 따로 공부하여 이해하거나 안 되면 풀이방식 암기라도 하였습니다. 회계학과 세법은 1차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는 힘든 과목이지만, 2차시험에 중복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다행히 재무회계의 김정호 회계사님, 원가관리의 김영주 회계사님, 그리고 세법의 양성희 회계사님의 강의가 짧은 기간에도 반복을 여러번 해 주는 스타일이어서 저의 경우는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점수를 따내야 하는 상법의 경우 이상수 박사님 동영상 기본 강의를 객관식 강의를 듣는 와중에 2번 반복하여 들었습니다. 상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보려고 노력했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지하철에서 상법책 이론을 보고 저녁에는 문제를 풀어보며 문제 유형을 익혀나갔습니다.

재정학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가지만 이론 윤곽을 잡고 문제유형을 익히면 상법과 마찬가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객관식 종합반 과정을 수강신청하면서 바로 김판기 선생님 동영상 강의(교재-정병렬 저 재정학연습)를 미리 수강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시간이 워낙 모자라 평소에 시간할애를 못하고 주말에 문제만 조금씩 풀다가 시험 직전 일주일동안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학원 교재인 조정조 박사님 책의 모든 이론을 다시 읽고 모든 문제를 풀었습니다. 조정조 박사님 책의 이론이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정리를 잘 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자신감을 갖고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4. 2차 시험준비

그렇게 1차 시험에 합격하고 합격의 기쁨도 누릴 틈이 없이 바로 2차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차 강의는 끝없는 모의고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밤새워 가면서 정성껏 준비해 오신 모의고사를 풀면서 매일 매일을 실전 시험과 같이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받는 모의고사를 다음 수업 직전에 다시한번 풀어보곤 하였으며, 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 전체 모의고사 유인물들을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세법학은 처음 접하면서 과연 이 시험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자신이 없기도 했지만, 누구나 저와 같을 거라고 위안을 삼으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천수, 홍재봉 공저의 응용논제 120선 동영상 강의를 듣고 문제를 꼼꼼히 반복하여 풀어보았고 문제마다 해당하는 기본서를 찾아보면서 관련 범위 이론들을 암기하여 써보곤 하였습니다. 노희양 세무사님의 세법학 제본 교재는 이론 부분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차 과정을 가르치는 재무회계-김정호 회계사님, 원가회계-김영주 회계사님, 세무회계-이종하 세무사님, 세법학 노희양 세무사님. 모두 답안지 작성을 꼼꼼히 봐 주시고 정정해 주셔서 실제 시험을 치를 때 문제를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선생님들의 사전 지도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5. 수기를 마무리하며...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길지는 않았지만 공부를 시작하기까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심한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보고 노력한것이 이런 좋은 결과로 이어졌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여러분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을 괜한 고민과 걱정으로 소비하지 마시고awang 시작하셨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무조건 합격한다는 믿음을 갖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 다른 교재도 많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수강생의 태도가 합격여부를 좌지우지 합니다. 나는 붙을 수 있다는 진실한 믿음과 노력, 수업을 뒤쳐지지 않고 따라가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마지막까지 수강생들 한 명 한 명 친근하게 챙겨 주셨던 아이파경영아카데미 선생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